

‘새로운 김제 성공시대’ 도약 위한 성과 창출

김제시는 2024년 한 해 시민의 행복을 시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열심히 달렸다.

비록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액과 국가명승 지정을 앞두고 발생한 망해사 화재, 농민들의 목숨값과도 같은 쌀값 폭락, 고병원성 AI 발생 등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지속가능한 김제발전을 위해 현재의 가치 향상과 희망의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 결과, 2024년 한 해, 새로운 김제 성공시대 도약을 위한 많은 성과들을 창출해 낼 수 있었다.

2024년 김제의 10대 분야별 주요 성과들을 살펴보자.



시 최초 3년 연속 국가예산 1조원 돌파
유망 기업 투자로 지속성장 기반 마련
올 전국 지자체 일자리평가 대상 수상
김제상공회의소 분할 승인... 숙원 이뤄
구 동진강휴게소 리모델링 등 난제 해결
진통산 망해사, 국가자연유산 명승 지정
힐스타운 시암 공모 선정 정주여건 개선
열린 시장실 운영·열린대학 추진도

정성주 김제시장

▲김제시, 역대 최초 3년 연속 국가예산 1조원 돌파

먼저,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김제시 최초로 3년 연속 국가예산 1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국가예산 확보라는 지자체 간 총성 없는 경쟁과 비상시국 영향에 따른 ‘감액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절박한 상황에서 이룩한 피, 땀 어린 노력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2025년 국가예산 확보액은 국가 직접사업 5,518억원, 시 직접사업 4,818억원으로 총 1조 334억원이며, 주요 신규 반영사업으로는 △만경 중불록 노후상수관망정비사업(총사업비 389억원) △지역활력타운 힐스타운 시암 조성사업(총사업비 415억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우분연료화) 설치사업(총사업비 409억원) 등이 있다.

▲김제시 최초 대기업(쑤두산 유치 등) 미래신산업 중심으로 산업체질 개선

김제시는 유망한 첨단기업들과 투자협약을 맺으며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2024년 김제시 최초 대기업인 쑤두산의 김제공장 준공식에 더불어 투자유치 협약을 맺은 기업은 총 10개, 4,738억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했고, 577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이다.

특히,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추진한 기회발전특구 지정 사업에 지평선 제2산업단지과 특장차 제2단지가 선정돼,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김제시 대도약을 이룰 새로운 동력을 갖게 됐다.

김제시는 지역의 유망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탄탄한 제도적 지원기반도 구축했다.

글로벌시장 진출 토털마케팅 지원사업, 해외시장 개척사업,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등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도약에 삼을 수 있는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해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활력에 집중

2024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평가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해 국무총리 기관표창과 인센티브 8,500만원을 확보했다.

김제시 역대 최초 4년연속 일자리 분야 수상이라는 대기록을 세우고, 고용률은 68.7%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 9월에는 서남상공회의소 임시총회에서 김제 상공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김제상공회의소 분할이 승인됨에 따라 독립적으로 설립이 가능해져, 관내 기업인과 상공인들을 하나로 응집할 수 있는 경제발전의 교두보를 확보했으며, 전북권 4대 도시 위상 확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김제사랑상품권 가맹점 확대, 전통시장 5일장 규모확대 운영, 소상공인 지원 정책 등 민생경제 활력에 집중 노력했다.

▲농업은 스마트하게, 농촌은 매력있게

농업의 반도체라 불리는 종자산업에 신성장 핵심 동력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종자생명산업특구 운영, 국제종자박람회 개최, 종자생명 맞춤형 인력양성 등 K-종자산업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가예산 확보 활동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 협약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새만금 김제 희망축제



지평선 새마을 개관식



진통산 망해사 명승 지정

지역 농업발전을 이끌어갈 청년후계농 전국 최다 선발과 4년 연속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선정, 도내 최대규모 시비 직불금 지급, 여성농업인 복지서비스 확대, 4년 연속 농식품바우처 공모사업 선정 등 대한민국 농생명수도로서 위상을 확립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희망, 새만금 중심도시 김제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수립에 적극 대응하여 다양한 사업을 발굴로 국가사업 추진의 발판을 제공하는 등 김제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2024년도 김제시 신항민발견위원회 개최, 새만금신항 학술대회 개최, 새만금신항 개항 대비 김제시 항만 운영전략 수립 등 새만금신항 및 해양공간 관할권 확보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26일에는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만경7공구 방수제가 김제시 관할로 최종결정되어, 향후 새만금 동서도로의 김제시 관할 결정에 유리한 교두보를 마련하였다.

▲장기 난제사업 해결에 앞장서

구)동진강휴게소는 1992년 운영을 시작으로 지난 2023년 12월 김제시와 민간사업자간 김제온천 활성화와 세부 시행계획에 대한 MOU를 체결하여 12월 21일 쿼드 스파랜드로 새롭게 개장할 예정으로, 향후 전북권 대표 복합 휴양시설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래를 키우는 김제, 함께 누리는 교육복지

지난 7월 30일 지방시대위원회 4대 특구 중 하나인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3년간 매년 최대 30억원 지원, 특별교부금 지원 등을 통해 미래인재 양성을 이끌 새로운 동력을 갖게 됐다.

또한, 교육부가 주관한 2024년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에서 호남권역에서 유일하게 ‘우수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시민 건강권 보장 및 확대 등을 위해 달빛어린이병원을 신규 운영해 시민들에게 신속한 의료 서비스 제공과 접근성을 강화했다.

특히, 전북권 최초로 천사무료급식소를 유치해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에 많은 기여했으며, 저출생·고령화라는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 함께 출산율이 전국 평균치(0.72)의

2배인 1.37명을 기록해 도내 1위, 전국 4위라는 결실을 맺기도 했다.

▲김제만의 매력을 살린 문화관광도시

정부의 국가유산체제 전환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300년 고찰 진통산 ‘망해사’가 첫 국가자연유산인 명승으로 지정받아, 서해 일몰 낙조 명소이자 갈대숲 생태관광자원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었고, 새만금 일원의 랜드마크 명승지로서 관광 활성화 기반과 국가예산 확보의 기틀을 마련했다.

아울러, 김제시민의 자존감이라 불리는 김제지평선축제와 김제꽃빛드림 축제, 모악산유적 페스티벌, 새로보미 축제, 김제문화유산 야행, 국제종자박람회 등 크고 작은 행사를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위상과 지력을 보여줬다.

특히, 하기, 태권도, 배드민턴, 축구 등 전국 및 도 단위 대회(전국10, 도6)와 전지훈련팀 유치(23개팀)를 통해 4만1,000명이 방문해 25억 6,300만원의 직접적인 경제적 파급효과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지난 5월, 412억원 규모의 국토부 소관 지역활력타운 ‘힐스타운 시암’ 공모에 선정돼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등 주거 안정화를 적극 추진하고, 2050 탄소중립 실현과 새만금 유역 수질 개선을 위해 우분 연료화시설 사업,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용지 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 용지면 신정리 인공습지 조성 등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저상형 친환경 수소버스 도입(3대)과 차량신호등 보조장치 설치,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과 마진지구 풍수해생환관 종합정비, 봉서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추진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구축하는 등 시민의 안전생활을 도모하고 있다.

▲시민의 눈높이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행정

시민 중심 열린 시정 구현을 위해 열린 시장실 운영(대회의장 110건, 현장방문 83건), 시민소통 열린대학 추진(건의사항 310건), 찾아가는 기업인 간담회 개최(참여인원 107명), 시민소통채널 운영 등을 실시했다.

또한, 민선8기 공약사업 성실 이행으로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했으며, 새롭게 탄생한 도시브랜드(BI) 지평선생명도시와 싸리, 콩이 캐리커는 시민들의 애정 어린 관심 속에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시는 또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무총리상 수상,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행정평가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재정집행 우수시군 인센티브 확보 등 시장 곳곳에서 알찬 결실을 거뒀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올 한 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김제 발전을 위해 따뜻한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25년 새해는 민선 8기 3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성장의 과실이 시민들의 삶에 더 빨리 확산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도태기자